

5개구 현안 15건·주민숙원 40건 지원 건의

이용섭 시장 '5개 구민과의 대화' 8개월만에 마무리 도시철도 2호선·광주형 일자리 등 정책사업 설명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선 7기 시장 취임 후 8개월 만에 가진 첫 5개 자치구 방문을 마무리했다. 5개 자치구가 15건의 현안사업, 주민들이 40건의 민원을 이 시장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북구청장은 지난 28일 간담회를 갖고 시와 자치구의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이 시장은 ▶동구 학동 삼거리 정비, 동명동 카페거리 지중화 사업, 무등중-옛 현대교통 간 도로 개설 조기 완공,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센터 건립, 월남동 차고지이전 용역비 ▶서구 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 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남구 세계수영대회 대표응원단 구성, 남구보건소 기능 보강,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 조기 완공 등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다. ▶북구 제4수원지 인근 고지대 자연마

을(8개 마을) 수돗물 공급, 국립광주박물관 신규 진입로 개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 개선,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북구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사업비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농촌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송산교 보수보강 공사, 비아동 상당회전교차로 설치, 신장동 풍영정전 보도 설치 지원 건의 등도 포함됐다. 동구 중장로 활성화, 서구 농성동 리더스하이 패견물 활용방안, 남구 진월축구장 조성사업, 북구 장암기업성장센터 건립, 광산구 수완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 시장은 또 주민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광주형일자리,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 등 현안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현안들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29일 동구를 시작으로 2월 15일 광산구, 21일 서구, 25일 남구, 27일 북구를 차례로 방문해 구정현안을 청취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천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 무진대로 한중간에 새로 설치

광주시는 유스퀘어 건너편 광천터미널 정류소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를 무진대로 상에 분리 설치한다. <조감도> 시는 지난 2012년 화단 2개를 제거하고 시내버스 정류소를 방향별로 분리하는 한편 레드존을 설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개선공사는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 등이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됐다. 공사는 시공사가 맡아 3월까지 시행한다. 먼저 무진대로에 남아있는 화단을 제거하고 도로 중간에 80m 길이의 버스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 이 승강장

에는 버스도착안내기(BIT),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한 ATM, 스마트폰 충전단자, 광대역와이파이 등 스마트 시설이 포함된다. 또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 일대 인도를 도로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 기존 편도 8차선에서 9차선으로 확대한다. 이번 정류소 추가 설치로 시내버스와 택시 승하차가 분리되고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도 별도로 운영되면서 교통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버스정류소 앞에 임시 정류소를 설치하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

광주시의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80.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또 설치율은 82.2%로 상위권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시설물 7065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2013년 적정 설치율 61.4%와 설치율 70.6%에 비해 각각 18.8%p, 11.6%p 상승한 수치다. 시는 올해도 '다중이용시설 보행장애물 제거사업'에 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300㎡ 미만) 근린생활시설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백운광장 하수관로 개선사업 설명회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운광장 일대에서는 오는 5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사업,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 연장 17.06km) 사업이 각각 시작된다.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운광장 일대에서는 오는 5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사업,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 연장 17.06km) 사업이 각각 시작된다.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운광장 일대에서는 오는 5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사업,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 연장 17.06km) 사업이 각각 시작된다.

징계 타당성 검토...동구보건소장 갑질 논란 새국면

시소청위 6일 취소 요청 심의 시의사회 620명 탄원서 제출 "노조 성명 등 여론몰이 희생"

남포 광주 동구보건소장이 일부 직원들의 갑질 제보에 따른 광주시의 징계 조치가 잘못됐다며 광주시 소청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회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사 620명이 서명한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잇따른 보건소장과 직원 간 갑질 논란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인 소장과 일부 보건소 직원 간 업무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작은 마찰까지 갑질

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3일 광주시시에 따르면 남포 광주 동구보건소장은 지난해 말 광주시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공무원 품위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에 내리진 후 표창장경과 불문경과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남 소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따른 합당한 결과인지를 살펴줄 것을 광주시소청위에 요청했다. 시 소청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 소장의 요청을 심의한다. 남 소장은 제출한 서류에서 "징계 사유가 된 직원 42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단 1명만이 소장의 갑질 행위를 지목했으며, 이 역시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보건소는 업무량이 다른 곳에 비해 많아 힘든 곳이며, 해당 직원의 문제제기는 보건소내 다른 상급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가 남 소장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 양상이 돼 갑질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남 소장의 주장이다. 남 소장은 이어 "갑질은 없어야 하며, 평소 직원들에게 갑질로 여겨질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객관적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지고 그에 합당한 징계라면 탈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3개역서 봄 맞이 예술무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4월 상무역 등 3개역에서 봄의 서막을 여는 '2019 지하철 예술무대 개막공연'을 펼친다. 이날 상무역과 금남로4구역, 남광주역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30분 사이 14개팀 자원봉사 공연자들이 흥겨운 색소폰, 국악, 통기타, 댄스 등을 펼치며 봄의 상큼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을 맞아 상무역에서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재능기부봉사회에서 유관순 시극을 펼치며 선원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대한스포츠키아협회의 댄

스가 시민들에게 봄기운을 한껏 불어넣을 예정이다. 금남로4구역에서는 흥영미씨 외 20여명의 공연자들이 각각 난타, 색소폰, 가요, 전통무용, 통기타, 시낭송, 퓨전가요, 민요, 가요 등의 공연에 나선다. 또 남광주역의 미리내 색소폰과 놀이패 만월의 신나는 공연을 펼친다. 이날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35개 단체 400여명의 자원봉사 공연자가 1년 내내 특색 넘치는 지하철 예술무대를 꾸려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선전화로 신고해야 소방차 더 빨리온다

현대전화는 위치 파악 늦어 119 신고 시 휴대전화보다는 주변에 있는 유선전화로 신고해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전화의 경우 신고자의 위치와 가까운 기지국을 우선순위로 잡혀 신고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는 총 29만6985건으로 소방력 출동을 요하

는 신고가 9만5457건(32.14%), 안내·타기관 이첩·오접속·무응답 등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했다. 신고매체를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 7만1871건(75.2%), 유선전화 1만1389건(11.9%), 기타 IP폰·다매체 순이다.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하는 셈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신고는 위치 확인의 어려움으로 출동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